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에베소서 4장 30절 ~ 5장 2절)

9월 24일

이번 주 성경 공부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다. 첫번째 특징은 4장 32절의 “서로 용서 하십시오.”이며, 두번째 특징은 5장 2절의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이다. 30절의 ‘성령 하나님’이 슬픔을 느낀다는 표현은, 그 분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은, 그 분의 본성이신 ‘용서’와 ‘사랑’에 양립해서 살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잘 가르쳐주고 있다.

◆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용서와 사랑으로 산다 (엡 4:30~5:2)

30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31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32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1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2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1) 서로 용서하기 (4:30~32)

우리 모두는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죄인이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도적적인 분이시며, 온 세상을 만드시고 피조세계를 초월하시는 전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악독, 걱정, 분노, 소란, 욕설)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런데 이 ‘은혜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를 받아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된 우리들이, 아직도 옛사람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슬퍼하시므로 (인격적인 분이어서), 그 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를 보시고 한없이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한없이 슬퍼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삶에서 서로를 ‘용서하는 모습’이 흘러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2)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5:1)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본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므로, 성부 하나님을 본받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자 하나님’을 보고 배울 수 있게 하셨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완전한 모범’이 되시기 때문이다.

3) 사랑으로 살아가기 (5:2)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 그 자체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라고 말한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간의 관계라고 배운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가페의 내리 사랑이, 십자가의 수직적인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십자가의 수평적 사랑이다.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은, 일상적인 삶에서 사랑이 나타난다. 사랑이 있는 사람의 보편적인 특징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두번째 특징은, 환한 미소를 가지고 '항상 웃는 얼굴'로 주변의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이다. 목장에서 대화를 하는 것도, 모나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한다. 그래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보게되면, VIP 들의 마음이 푸근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며, 단혔던 그들의 마음이 봄눈 녹듯이 열리는 것을 보게된다.

요한일서 4:7~8 의 말씀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본받아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다. (요일 4:7~8)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우리들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목장과 교회이다. 목장과 교회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삼촌, 작은 엄마, 형님, 동생, 친구, 자녀같은 사람들이 모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본받은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목장에서 항상 '따뜻한 마음' 을 가지고 섬겨줄 때 삶이 변하지, 바른 말을 해 주어서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본다. 오히려 바른 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서 목장 식구들에게 사랑을 연습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영적인 한 가족인 목장 식구들을 잘 섬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다.

하나님께 본받은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두번째 최적의 장소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이다. 하나님을 먼저 믿었다고 교회 사역을 할 때 텃세를 부리는 사람들을 가끔 볼수 있다. 누구를 위한 신앙이고, 누구를 위한 사역인가. 새로 믿은 사람들이 사역에 동참할 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환하게 미소 짓는 얼굴로 사역을 잘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것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고린도전서 13:1~7 에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잘 나와있다. (고전 13:1~7)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팽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성부 · 성자 · 성령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연습하자.
- 따뜻한 마음, 웃는 얼굴로 서로를 대하자.
- 내 안에 있는 사랑의 탱크가 가득차서 흘러 넘칠 때, 권면과 사랑의 표현을 하자.